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

함 이기보까?



손흥민, BTS, 오징어게임에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띄워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유치경쟁 중인 세계 유력도시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기고
지구촌 3대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량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부산 유치해”를 외쳐주세요!**

유치 예상효과	개최기간 2030. 5월~10월	개최장소 부산북항일원	참가규모 약 200개국 5,050만명	경제적 파급 효과 61조원	일자리창출 50만명
---------	----------------------	----------------	-------------------------	-------------------	---------------



2021 부산체육을 담다

2021 부산체육을 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1 부산체육을 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04 머리말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Chapter I 이슈 앤 포커스

- 08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장 선임
- 10 코로나19 속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의 운명은?
- 12 파고(波高)를 넘어 도쿄를 향해!
- 14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다
- 18 지방체육회 법인화 추진
- 20 스포츠 정신은 스포츠 윤리에서 시작된다

- 22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 26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을 향해
- 28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 32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 개최
- 34 2021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실시

Chapter II BSC 뉴스

- 38 플로깅 행사, 클린 갈맷길 캠페인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체육 사업 발표
- 39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취임 1주년 부산체육의 도약, 생활체육 활성화로
- 40 부산광역시·구·군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장 간담회 개최
- 41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 개최
- 42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 영상 중계·제작 보급
- 43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
- 44 부산광역시체육회-BNK저축은행 근대5종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협약식
- 45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해운대구FC 유소년팀 방문 격려
- 46 부산광역시체육회 브랜드이미지(B.I) 시민공모전 개최
- 47 부산광역시체육회-화신사이버대학교 관·학협력 업무 협약식 개최
- 48 부산광역시체육회-동아대학교병원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9 제16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체육회, 6개 종목에 1,000여 명 참가
- 50 부산광역시체육회 법인 출범식 및 이사회 개최
- 51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09명 정규직 전환
- 52 부산광역시체육회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지원
- 53 약조건 속에서도 열정 다했던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 54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출전하는 태극전사 일본 도착해 현지 적응 돌입
- 55 대한민국 선수단, 여자 배구 8강에서 명승부 펼친 터키선수단 사무실 방문
- 56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영웅들 '월드엑스포 부산' 홍보대사 위촉 추진
- 57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개최
- 58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참가 부산 소속 메달리스트 포상금 전달
- 59 부산광역시체육회 꿈나무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확대
- 60 부산광역시체육회-한국거래소 초·중학교 학생선수 장학금 전달식 성료
- 61 부산광역시체육회-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62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부산 선수단 780명 참가
- 63 부산 선수단,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65개 메달 획득
- 64 부산광역시체육회-은산해운항공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장학금 전달식 성료
- 65 부산광역시체육회, 국립부경대학교와 부산체육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66 부산광역시체육회, 무료 여성 태권도교실 개강
- 67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친선과 화합에 앞장서다
- 68 부산광역시체육회-우성스포츠재단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장학금 전달식 개최
- 69 2021 부산체육꿈나무 장학금 및 운동용품 전달식 성료

2021 부산체육을 담다

발행일 2022년 2월 11일(월간, 비매품, 특집호) /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 편집인 김동준 / 편집·취재 성기환,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지환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 기획·디자인 디자인대훈(T. 051-898-0330)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Instagram

새해를 맞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만은 늘 희망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를 딛고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되어 새싹이 푸르게 올라왔다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계절처럼 <부산체육>은 지난 2016년 3월을 시작으로 2022년 1월까지 5년을 넘어 6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지 <부산체육>은 어엿한 체육 소식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체육을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담긴 책이 발간될 때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체육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번 특집호를 발간하기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체육인 모두의 노력이 담긴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체육>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체육인을 위한 소식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산체육을 담다>는 2021년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걸어온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준비해 온 계획과 체육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내실을 다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스포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체육>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체육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SUE &

FOCUS

함께 나아가게 한 건강한 경쟁

조용한 경기장 속에서도 선수들의 뜨거웠던 열정은
너와 나를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했습니다.
부산체육의 지난날에 박수를 보냅니다.

CONGRATULATION



Tokyo
Olympics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장 선임

2021년 7월 23일(금) 개막한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장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021년 3월 22일(월) 신임 집행부가 구성된 뒤 처음 모이는 이사회에서 장인화 선수단장의 선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일정을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올림픽경기대회 선수단장으로 선임된 1호 지역 체육회장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막을 앞두고도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자재 등으로부터 선수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역수칙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해 선수단을 교육하고, 대회 기간 동안 방역 전문가가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식자재 위험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수촌 인근에 마련한 급식센터에 지원 품목을 보냈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과일과 육류, 생선 등은 현지에서 검증된 식자재를 선별해 선수단에 공급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치러지면서 선수들의 현지 적응과 사기 저하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1년 연기되면서 선수들의 간절함은 더해졌고, 갈고닦은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속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의 운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계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각종 경기와 대회는 줄줄이 취소됐고, 겨우 치러진 경기는 무관중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2020년에 개최되었어야 할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역시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었으며 지난 2021년 3월에서야 성화 봉송을 시작했다.



ISSUE & FOCUS



● 안전한 도쿄 올림픽경기대회를 사명으로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는 2021년 3월 25일 오전 9시 40분(현지 시간)부터 성화 봉송을 시작했다. 첫 주자는 2011년 여자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위를 한 국가대표팀 선수 16명이 나섰으며, 뒤이어 약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성화 봉송 기간 동안 매일 PC와 모바일로 해당 장면을 생중계했으며,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가 아닌 온라인 중계 시청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관중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경기대회 자원봉사단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2021년 5월 19일(수) 열린 IOC와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간 온라인 조정위원회에서 “올림픽 선수촌과 경기장에 코로나19에 대응할 의료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설을 통해 “선수촌에 머무는 전체 인원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라며 “올림픽 선수촌은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고, 도쿄 올림픽·패럴림픽경기대회가 매우 안전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해외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은 1차로

자국 출국 전 72시간(3일) 이내의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해야 하고, 입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96시간(4일)~120시간(5일) 후에 재검사에 응하도록 했다. 선수촌에 들어갈 때는 물론이고 시합에 나가기 전에도 코로나19 검사는 계속됐다. 특히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은 체류기간 내내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정기검사 대상이며, 무증상 양성으로 나올 경우 재검사를 실시했다.

●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는 개최 찬반과 안정성 여부를 시작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21년 5월 말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까지 늘어났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3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2021년 5월 24일(현지시간) 일본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인 ‘여행재고’에서 4단계인 ‘여행금지’ 권고를 발효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확산할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으로의 모든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 데 주목했다. 또한 NHK는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올림픽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일본 국민이나 국제사회를 납득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나라에 새로운 타격”이라고 보도한 것을 소개하는 등 미국 정부의 결정을 주시했다. 도쿄스포츠 역시 미국의 일본 여행금지 권고에 대해 “미국 선수단의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스포츠 대국인 미국 선수단이 참가할 수 없게 되면 동조하는 타국 선수단이 이를 따르는 사례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은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긴급사태 해제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할 위험에 대한 불안함은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경기대회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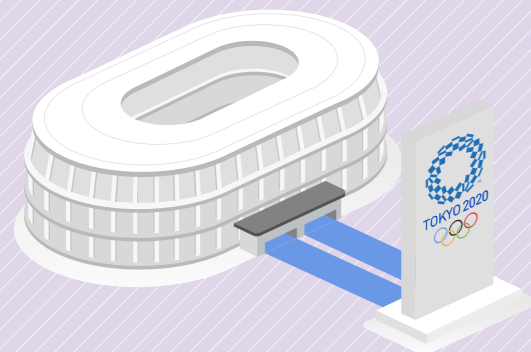
출처: 대한체육회 스포츠원 2020년 12월호, Sports in KSOC-Sports Hot Issue③, 대한체육회 스포츠원 2021년 3월호, 생생 스포츠-이슈체크, 부산일보, 장혜진, 2021. 05. 19. <IOC “도쿄올림픽에 의료진 파견… 안전한 올림픽 될 것”>, 서울신문, 신진호, 2021. 05. 25. <“미국, 도쿄올림픽경기대회 불참”…‘여행금지’ 권고에 걱정커지는 일본>

“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해외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참가 파고(波高)를 넘어 도쿄를 향해!

◆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제35호(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대 올림픽경기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는 코로나19라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열리게 되었다. 참가를 결정한 국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다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29개 종목, 354명(선수 232명, 임원 122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을 파견했다.



ISSUE & FOCUS



● 쉽지 않았던 결정, 참가자 확정

2021년 6월 18일(금) 대한체육회는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측에서 개막 4주 전에 참가선수 명단 등 활동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로, 참가자를 확정된 각 종목 단체 결과를 모아 규모를 결정했다.

2021년 7월 8일(목)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밝힌 한국 선수단 참가 규모는 이전보다 늘어 29개 종목에 선수 232여 명, 임원 122여 명을 합친 354명이다. 이는 직전에 개최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경기대회(24종목, 333명) 때와 비슷한 규모다.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7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해 Top10에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 참가 대표선수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2021년 4월에 열렸던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G-100 미디어데이에서 가장 큰 화제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전원은 2021년 4월 29일(목)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그리고 방역수칙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선수들을 교육하고, 대회 기간에 방역 전문가가 동행하는 등 선수단의 안전을 관리했다.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G-100 미디어데이에서 공개된 선수단복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건곤감리(乾坤坎離)를 형상화하거나 대한민국 레터 로고를 넣고, 고려청자의 배색을 재현하는 등 한국의 전통을 디자인에 녹여냈다는 점이다. 특히 고온다습한 도쿄에서 선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냉감, 발수, 투습, 흡습, 속건 등의 특수 기능을 강화해 선수들이 목표로 했던 성과를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굳건한 다짐, 국민 응원 기대

2021년 7월 8일(목) 서울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개최되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과 의지로 훈련에 매진해 온 대한민국 선수단은 결단식을 통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장인화 선수단장은 “우리 선수단은 1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경기장 안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멋진 승부를 펼치고, 경기장 밖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완벽히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응원 한마디가 선수들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힘찬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한 부산소속 선수단은 펜싱(송세라, 마세건), 요트(박건우, 조성민, 하지민, 조원우), 근대5종(김세희), 사이클(이혜진), 수영(우하람), 배드민턴(허광희, 서승재, 안세영, 김가은), 핸드볼(강재원, 류은희, 주희, 강은혜, 심해인, 김진이, 박준희), 농구(안혜지, 진안), 야구(박세웅), 축구(안준수, 김진규) 그리고 신설종목인 가라테(박희준)이다.

대회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 펼쳐져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무리되었다.



Tokyo Olympics

출처: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한국일보, 박관규, 2021. 06. 18.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 196명 잠정 확정... 종합순위 목표는 10~15위>, 뉴시스, 최진석, 2021. 06. 28. <D-25 도쿄올림픽...독도·육일기 논란 속 태극전사 구슬땀>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다



스포츠안전재단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의 기고문이 실렸다.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선수단장을 역임한 장인화 회장은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동과 기쁨의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진행된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는 선수단의 방역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한국에서 일본 현지로 방역전문가 3명을 파견했고, 장인화 회장은 선수단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선수들이 훈련을 하며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이자 지원군을 자처했다.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에 대비하고자 매뉴얼을 제정했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회 기간 동안 단 한 명도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았고, 33개 종목(부산 6개 종목)에 354명(부산 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는 안전하게 마무리되었고,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다.



“ 장인화 선수단장과 선수들의 노고가 빛나는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반성장

제32회 도교 올림픽경기대회가 막을 내린 뒤 장인화 회장은 부산광역시 체육회로 복귀해 지역스포츠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장인화 회장이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핵심 목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반성장'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마케팅 분야를 활성화해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 확립을 계획 중이다.

지역사회의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꿈나무 선수를 지원하는 등 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기업으로부터 선수 장학금을 유치했고, 과학적 훈련용품 지원 및 훈련 여건 개선 사업을 운영해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공공체육 시설을 확보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 동북아시아의 해양 수도인 부산광역시의 기반을 활용해 해양 관광과 해양레저스포츠가 부산체육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희망으로 가득할 부산광역시체육회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으로 체육계는 많은 변화와 위기를 겪었다. 각종 체육활동이 축소되었고 대회는 취소되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회가 되었다.

이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과 공제, 각종 대회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영위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체육회, 체계적인 경영체계를 도입하는 체육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체육회가 되고자 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제32회 도교 올림픽경기대회 선수단장을 맡으며 선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한 장인화 회장의 행보처럼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Major resume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치 운영 기대

지방체육회 법인화 추진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2020년 12월 8일(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지역 체육인들이 간절히 바랐던 지방체육회 법인화가 법률로 공포된 것이다. 향후 지방체육회는 지역체육진흥 전담 기관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지방체육은 더욱 풍성하고 활발하게 성장하는 근간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ISSUE & FOCUS



● 법인화에 일제히 박수 보낸 지방체육회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1월 19일(목) 국회 본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역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지방체육회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16일(토)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현재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의 지위를 가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한 과거와 달리 민선 체육회장 체제 이후 그 위상이 저하될 것을 염려했다.

실제로 많은 지방체육회에서 2021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체육 발전이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0년 6월 23일(화)부터 지방체육회장을 중심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51명)를 구성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지방체육회 법인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전개해 마침내 법 개정의 결실을 일궈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9일(수)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날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245개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표준 규정 및 표준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설립 매뉴얼, 각종 영상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을 주요 내용



- 제2조(정의) 가목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제22조(기금의 사용) 1항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해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 제33조의 2(지방체육회)를 신설해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했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재원 확보와 자율성 확보 시급

지방체육회는 그간 각 지자체의 후원 아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 우수선수 발굴·육성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법인화라는 새 옷을 입게 된 지방체육회는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민간과 전문 체육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물론 이를 위해 지방체육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그중 하나가 지방체육회의 재정 확보이다. 충분한 재정 마련은 지방체육회의 존립과 사업 확장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체육단체 대상'에 지방체육회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방체육회가 골머리를 앓았던 재정 확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도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고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지방체육회는 이제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부금 사업의 확장, 기업 후원금 유치 활성화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시·군·구체육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운영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방체육회의 시설 활용 노하우와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통해 시민체육이 보다 융성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확보 역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가지 역할을 해왔던 것이 과거의 방식이라면, 이제는 각 지방체육회마다 각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을 펼쳐야 할 때다. 자율성 확보가 이루어질 때 지방체육회의 법인화는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간 지방체육회는 풀뿌리 생활체육의 산실이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 체육인을 발굴해낸 공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무늬만 법인화인 채로 과거의 방식을 답습한다면 법률 개정은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다. 이제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통해 지방체육회의 안정화와 스포츠 선진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대한체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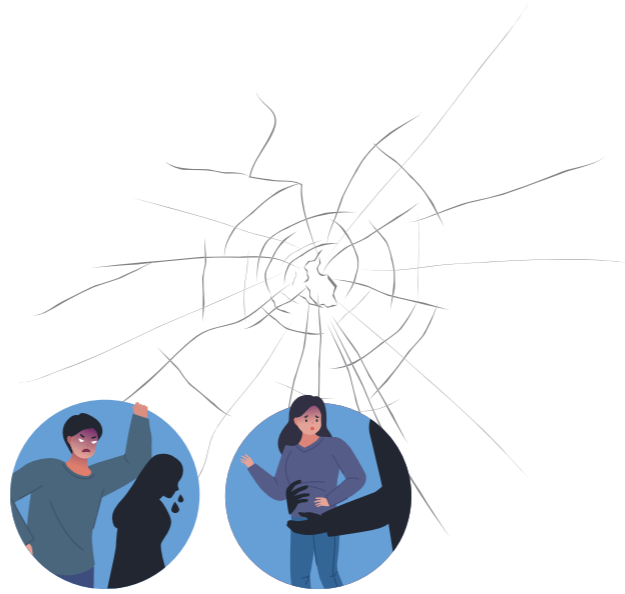
스포츠 정신은 스포츠 윤리에서 시작된다



스포츠 인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인권은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성)폭력 및 여러 가지 인권 문제로 피해를 보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해 왔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위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현장에서도 실천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ISSUE & FOCUS



● 스포츠 폭력 없는 미래를 위해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폭행 등 스포츠 관련 비위(非違)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관을 두고 면밀히 살펴왔으나, 늘 사법 권한 및 사법공조시스템 부재 등에 따른 제도적 한계에 부딪혔다. 사법권한이 없는 조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수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폭력, 성폭력 및 비리 척결 전담기구를 설립했다. 이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담긴 '최속현법'도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스러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곧바로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보호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됐다.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운동부에서부터 출발해야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거진 프로선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스포츠 인권과 스포츠 윤리를 학교현장에서부터 강조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학교운동부의 인권문제는 지난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 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조사 결과 외출·외박 등 일상 행위에 대한 통제가 과거와 비교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46.1%가 이 같은 폭력적 통제 중 어떤 것도 “운동부 운영·운동능력 향상·운동 수행·승리 등과 관계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폭력·통제 행위 모두가 필요한 행위라고 인식한 선수는 12.4%에 불과했다. 외출·외박 제한(38%), 두발·염색·복장 제한(37.2%), 빨래·청소·심부름 강요(32.2%) 등을 겪은 사람도 많았다. 비하, 욕설, 협박(29.1%)을 경험했고, 기합을 받은 선수도 다수(학년 전체 기합 25.6%, 학년별 순차적 기합 21.7%), 구타·체벌(15.9%), 성희롱·성폭력(9.3%)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5일(월) 대한체육회, 주요 대학,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학교운동부 내 폭력적 통제 관행을 규제·예방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는 학내 인권교육을 실질화하고 인권센터 등 인권침해 구제기구에서 폭력적 통제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라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러한 노력들에 더해 체육인 모두가 소중한 선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출처: 대한체육회 스포츠원 2020년 7월호 외,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체육,
새로운 100년을 꿈꾸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부산을 대표해 참가한 고등부 선수들의 일정도 끝이 났다. 1920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를 달려온 전국체육대회는 2021년 10월 8일(금)부터 10월 14일(목)까지 7일간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만큼 방역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모든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 비록 규모나 인원은 축소되었지만 선수들의 값진 땀방울로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한 대회 속으로 들어가 보자.



부산의 자긍심을 높일 선수단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부산 선수단은 38개 종목에 선수 436명, 임원 344명 등 총 780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주 개최지인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일원에서 펼쳐졌다.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 대학부와 일반부는 취소되었으며, 고등부만 개최했다. 경기종목은 41개(정식종목 40개, 시범종목 1개)이며 17개 시도 19세 이하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무관중으로 결정되면서 대회 개최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워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준비하는 시점에 치러진 첫 번째 국내종합경기대회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대회를 앞두고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부산 선수단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두가 건강하게 경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며 “국제스포츠 도시로서의 부산 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 선수단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경상북도 전국체육대회 기획단은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경기를 지켜볼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대회 기간 동안 구미시민운동장 일원에서 50여 개의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고,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멋진 승부로 빛나는 결실을

코로나19로 입시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만 참가한 ‘축소 대회’에도 불구하고 부산 선수단은 명승부를 펼치며 대부분의 종목에서 예상 성적을 웃돌거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부산의 메달 성적은 2021년 9월 사전 경기로 진행된 부산 대표 KT의 여자 하키 일반부 금메달도 포함되어 금메달 16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9개로 총 65개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과 에어로빅이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 중에서도 에어로빅의 차지원(부산체육고등학교)이 여자 개인, 단체, 합합단체 등 3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두드러지는 활약을 펼쳤다.

수영은 남자 평영 100m의 김민규(부산체육고등학교)와 남자 자유형 400m 권희준(부산체육고등학교), 여자 개인혼영 200m 이승은(사직고등학교), 여자 접영 100m 안유진(부산체육고등학교)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역도 89kg급에서는 김근현(부산체육고등학교)이 용상에서 금메달을, 여자 역도 76kg급의 김자현(서부산공업고등학교)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김자현은 용상에서 112kg, 용상과 인상 함께 196kg을 들어올렸다.





육상은 남녀 장대높이뛰기에서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산대표로 장대높이뛰기에 참가한 남자 권용현(부산체육고등학교)은 4m 60cm, 여자 윤예린(부산체육고등학교)은 3m 20cm의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땀다.

금메달 행진은 이어졌다. 자전거 단체 스프린트의 이찬영 외 3명(부산체육고등학교), 우수 김현균(강서고등학교), 조정 더블스컬의 류준(동아공업고등학교)과 이승준(동아공업고등학교), 여자 유도 52kg급 정나리(부산체육고등학교)도 금메달을 따며 부산 선수단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

인기 구기종목인 야구는 승부 추첨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 대표로 출전한 경남고등학교는 대회 시작 전부터 금메달을 노렸지만 충청북도 세광고등학교와의 1차전이 경기 당일 내린 비로 취소된 후 추첨에서 밀렸다.

기대와 우려 속에 펼쳐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며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다. 이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 선수단이 무사히 대회를 마무리해서 기쁘다"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준 선수들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2022년 치러질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울산광역시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메달획득현황

*가나다순(종목)



금메달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1	수영	남고	최은도	마스터즈	해운대관광고등학교
2		남고	김민규	평영100m	부산체육고등학교
3		남고	권희준	자유형400m	부산체육고등학교
4		여고	이송은	개인혼영200m	사직고등학교
5		여고	안유진	접영100m	부산체육고등학교
6	에어로빅	여고	차지원	에어로빅-여자 개인	부산체육고등학교
7		고등	차지원 등 5명	에어로빅-단체	부산선발
8		고등	차지원 등 3명	합합단체	부산선발
9	역도	남고	김근현	인상89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10	우슈	남고	김현균	태극권전능	강서고등학교
11	유도	여고	정나리	52kg	삼정고등학교
12	육상(필드)	여고	윤예린	장대높이뛰기	부산체육고등학교
13		남고	권용현	장대높이뛰기	부산체육고등학교
14	자전거	남고	이찬영 등 3명	단체 스프린트	부산체육고등학교
15	조정	남고	류준, 이승준	더블스컬	동아공업고등학교
16	하키	여일	강진아 등 18명	단체전	KT



은메달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1	레슬링	남고	이지민	G63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2		남고	노병환	F65kg	부산체육고등학교
3		남고	이주성	F125kg	건국고등학교
4	배드민턴	여대	조서영, 지영빈	개인복식	부산외국어대학교
5		여대	구보은 등 7명	단체전	부산외국어대학교
6	수영	남고	권희준	자유형200m	부산체육고등학교
7		여고	안유진	평영50m	부산체육고등학교
8	씨름	남고	김성국	소장급	반여고등학교
9	양궁	여고	한주희	70m	부산체육고등학교
10	에어로빅	고등	박찬현, 박윤	에어로빅-2인조	부산선발
11	역도	여고	김지현	용상76kg급	서부산공업고등학교
12		여고	김지현	합계76kg급	서부산공업고등학교
13		남고	최운석	인상81kg급	서부산공업고등학교
14	요트	고등	성시우	국제레이저급	양운고등학교
15		고등	유지현, 정진욱	국제420급	양운고등학교
16	육상(트랙)	남고	고동욱	3000m장애물	부산체육고등학교
17	자전거	남고	권이건	스크래치	부산체육고등학교
18	체조	여고	김서현	제3경기-도마	부산체육고등학교
19	테니스	남고	김은재	개인단식	동래고등학교
20	펜싱	남고	천승현	사브르-개인	신도고등학교



동메달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1	근대5종	남고	손정욱	개인전(4종)	부산체육고등학교
2		남고	임동호	G82kg급	용인고등학교
3		남고	이주성	G97kg급	건국고등학교
4	레슬링	여고	강서림	F62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5		여고	최재영	F76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6		남고	이한울	라이트헤비급	부산체육고등학교
7	복싱	남고	김정환	헤비급	부산체육고등학교
8	사격	여고	이연주 등 4명	공기권총-단체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9	세팍타크로	남고	이준성 등 5명	단체전	부산체육고등학교
10		남고	권희준 등 4명	계영800m	부산체육고등학교
11		남고	권미주 등 4명	계영800m	부산선발
12	수영	남고	김민규	평영50m	부산체육고등학교
13		남고	신정호	자유형200m	부산체육고등학교
14		남고	이송은	개인혼영200m	사직고등학교
15		여고	안유진 등 4명	계영400m	부산선발
16		역도	남고	김근현	인상89kg급
17	남고		김근현	합계89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18	남고		윤형빈	용상61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19	요트	여고	김자현	인상76kg급	서부산공업고등학교
20		남고	박현국	국제윈드서핑	해강고등학교
21	유도	여고	남유리	57kg	부산체육고등학교
22		여고	이은비	63kg	부산체육고등학교
23		고등	남유리 등 11명	단체전	부산선발
24	자전거	남고	이찬영	1km개인독주	부산체육고등학교
25	조정	남고	김용현, 이승준	무타페어	동아공업고등학교
26	태권도	남고	이정민	-58kg급	부흥고등학교
27	펜싱	여고	심연우 등 4명	플뢰레-단체	부산체육고등학교
28		여고	이서현	플뢰레-개인	부산체육고등학교
29		여고	한다현	에페-개인	부산체육고등학교

출처: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스포츠 첫걸음!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을 향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 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남의 스포츠 교류 및 지역 간 화합과 친선을 도모 하고 상호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등 체육 분야의 선제적 역할과 대응을 위한 2021 부·울·경 메가 스포츠 한마당이 개최됐다.



ISSUE
&
FOCUS



● 메가시티, 스포츠 이벤트를 향해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은 시민체육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 등 지금까지 단일 시·도에서 개최되던 것과는 달리 부산·울산·경남이 화합하여 개최한 혁신적인 스포츠 이벤트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권역별 스포츠 이벤트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연결해 대도시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체육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울·경 도시 간 스포츠 교류 및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지역 간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등 체육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과 대응을 위해 2021년 4월부터 시정책관계협의회 및 시·도체육회, 종목단체와 주도적인 역할로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개최를 추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과 울산, 경남의 스포츠 분야 협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코로나19로 체육 활동에 목말라 있는 체육인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길 바란다"며 지역 스포츠 발전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개최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은 생활체육 등 아마추어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7개 종목(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야구, 조정, 카누, 테니스, 파크골프), 비경쟁 친선 경기 방식으로 진행했다. 장소는 아시아드보조경기장과 삼락공원 등 경기장에서 치러졌고, 경기 운영은 경기를 주관하는 각 단체의 경기 규칙 등을 적용해 원활하게 운영했다.

또한 시·도 간 스포츠 화합의 장으로,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한 정례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순서는 부산광역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로 순회 개최된다.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세대 간의 화합에 기여하고, 다양한 지역의 생활체육인이 만나 뜨거운 열정으로 생활체육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길 기대한다.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세대 간의 화합에
기여하고, 다양한 지역의
생활체육인이 만나
뜨거운 열정으로
생활체육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길 기대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에 앞장서다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부산과 울산, 경남 도시 간 스포츠 교류와 화합을 위한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11월 13일(토) 개최됐다. 대회는 아시아드주경기장과 APEC 나루공원, 삼락공원 등에서 펼쳐졌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최초의 권역별 스포츠 이벤트로 체육인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었던 만큼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ISSUE & FOCUS



스포츠 교류로 화합 도모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은 2021년 8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11월에 치러졌다. 대회는 2021년 4월부터 시·도체육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개최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부산과 울산, 경남 체육회장이 2021년 6월 간담회를 통해 순회 개최를 결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되었다. 지금까지 단일 시도에서 열린 것과는 달리 3개의 도시가 화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회식에는 각 시도 선수단 및 주요 내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과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성공 개최를 위해 화합을 다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

대회는 부산광역시 에어로빅 시범단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선수단이 입장한 후에는 화려한 오프닝 퍼포먼스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의 대회사와 부산광역시 이병진 행정부시장의 환영사도 이어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3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스포츠 교류를 나누는 결속과 화합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종목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야외종목 위주로 선정했다. 남녀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야구, 조정, 카누, 테니스, 파크골프로 총 7개이다. 종목경기 운영은 주관하는 각 단체의 규칙 등을 적용했으며 비경쟁 친선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했다. 또 종목별 진행 요원 및 행사 장소마다 관리 책임자를 두었으며 응급 요원 및 구급차를 배치해 신속하게 사고 대처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체육의 새로운 발걸음

한국형뉴딜 정부정책 사업의 일환인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은 부산과 울산, 경남의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연결해 대도시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에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체육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스포츠가 상생하기 위한 윈-윈 전략을 시행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3개 시·도의 철저한 준비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성공적으로 끝맺었다. 비경쟁 친선 경기로 종합 점수 시상은 하지 않았으며 부산은 공감상을, 울산은 우정상을, 경남은 화합상을 수상하며 마무리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과 울산, 경남 체육 동호인들의 단합으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를 치렀다”며 “이번 대회의 모범적인 참여가 동남권 지역체육의 새로운 발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3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스포츠 교류를 나누는 결속과 화합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향후 순회 개최로 이어질 것

2021년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메가스포츠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경상남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3년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추진된다.

앞으로도 부산과 울산, 경남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스포츠의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다양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되어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관광 등 폭넓은 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체육계의 힘찬 비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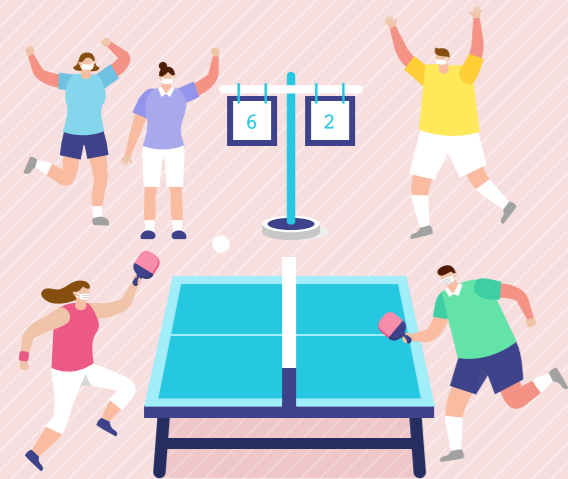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다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 개최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32회 부산 시민체육대회가 지난 2021년 11월 27일(토) 개최 됐다. 장소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외 5개 경기장에서 진행했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으로 더 의미가 있었던 현장 속으로 가보자.



ISSUE & FOCUS



●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 최우선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 종목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족구, 축구, 테니스, 파크골프 총 6개이다. 참가인원은 부산광역시 구·군을 대표하는 선수 및 임원 1,240명이며,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가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2021년에는 다양한 시도 끝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광역시에서만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2년 만에 어렵게 열리는 대회인 만큼 반갑고, 기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대회가 침체된 생활체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켰다.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준수했으며 발열체크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The 32nd Busan Sports Festival

●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부산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에서 멋진 승부를 펼치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동호인들의 모범적인 참여로 부산시민체육대회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가 시민이 소통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 결과 종합시상에는 경기력상에 사상구, 성취상에 사하구, 질서상에 금정구와 영도구, 강서구에게 돌아갔다. 화합상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이 받았으며 건강상에는 중구를 포함해 8개 구(區)가 차지했다. 경기운영상은 족구, 그라운드골프 종목이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는 모두의 염원을 담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끄는 시발점이 되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부산시민체육대회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부산체육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는 모두의 염원을 담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끄는 시발점이 되었다. ”

체계적인 생활체육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다

2021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실시



지난 2021년 11월 30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2021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맞춤형 안전 직무 교육을 제공해 스포츠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ISSUE & FOCUS



생활체육지도자 노고에 감사

2021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은 245개의 전국 지방체육회(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각 시·도에서 선정한 장소에서 진행했다.

부산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10명(일반생활체육지도자 69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41명)이 참가했으며 일정에 따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교육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출입 전에는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는 출입을 금지했다.

개회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부회장이 참석해 기념품을 전달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부회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쓰는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이 부산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도에 이바지

교육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교육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도 활용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교육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일정은 오전 교육 후 중식, 오후 교육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참가자 등록 및 개회식 후 안전의식 및 지도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했으며, 오후에는 스포츠 인권 교육 및 지도자 간담회가 분임토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은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과 생활체육지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많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은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과 생활체육지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BSC

NEWS

내일을 빛나게 한 오늘의 열정

선수들의 간절함은 감동이 되고,
시민들의 응원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부산체육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플로깅 행사, 클린 갈맷길 캠페인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체육 사업 발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실내·외 체육대회 및 활동이 축소된 만큼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2021년 1월 다양한 생활체육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운동요령 등을 설명하는 콘텐츠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 사업 외에도 부산의 16개 구·군별로 1회의 ‘플로깅(plogging) 행사’와 함께 ‘클린 갈맷길 캠페인’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에 조깅 ‘Jogging’이 합쳐진 말로, 작은 가방이나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서 쓰레기를 주워 담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걷기를 통해 운동 효과는 물론 자연보호로 환경도 지키는 일거양득의 활동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와 환경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광역시체육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생활체육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클린 갈맷길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구·군체육회와 함께 부산의 갈맷길 1~9구역 총 21개 코스를 나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운동 프로그램으로 바다, 강, 온천이 있는 지역이 특성이 담긴 갈맷길을 보호하면서 시민의 건강도 증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관계자는 “국립체육진흥법 개정으로 6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체육회가 법인화되는 시점에 맞춰 전문체육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구·군체육회와 종목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부산일보, 전대식, 2021. 01. 13.

<건강 챙기고 쓰레기도 줍고... 코로나 시대엔 ‘플로깅’ 어때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취임 1주년 부산체육의 도약, 생활체육 활성화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최초의 민선체육회장인 장인화 회장이 2021년 취임 1년을 맞았다. 취임 첫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회와 행사가 취소되는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체육활동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허용된 대면 및 비대면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부산체육을 도약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장인화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BNK저축은행의 근대5종 여자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북항의 해양레포츠 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 및 청년 체육회 일자리 창출, 기업 후원을 통한 선수 장학금 유치 및 스포츠용품 확보로 지역 꿈나무 선수 육성 기반 등 지역 체육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중점이 되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두가 쉽게 운동 가능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체육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선순환 구조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과 체육인이 보다 좋은 환경과 제도에서 스포츠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행복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제신문, 권용휘, 2021. 01. 27.

<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부산광역시·구·군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장 간담회 개최

지난 2월 9일(화)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외 16개 구·군 체육회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추진과 고용노동부 지방체육회 근로감독 실시, 대한노인체육회 관련 대응사항, 대한체육회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지방체육회의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학교체육의 정상화가 중요한 문제이며 학생 200명당 1명씩 정규직 스포츠 지도자를 배치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스포츠 지도자 강사를 늘려서 학교체육을 지원한다면 결국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현재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 처가 나누어진 실정인데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체육에 관한 통합관리가 필요, 이를 위해 국가체육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1년에 2번 정도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군·구 회장을 대상으로 1년에 1번 이상 1박 2일 연수를 실시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는 등 교류와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추진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후 16개 구·군 체육회장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동래구체육회 장준용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스포츠클럽, 스포츠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제안했다. 연제구체육회 김진근 회장은 구체육회의 집행 가능 예산과 선거에 관련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지원 가능 여부와 체육회의 실정에 맞는 표준조례(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서구체육회 김재업 회장은 지역의 대표선수들의 급여 지원을 언급했고 사상구체육회 강진태 회장은 체육회 임원(이사)과 사무국장의 인원 총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연임 제한 폐지를 얘기했다. 다양한 질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산체육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2월 23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포츠 폭력 및 인권침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최근 부산체육계 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부산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폭력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종찬 강사의 주재 아래 △체육계 (성)폭력 예방·근절 교육 △폭력·성폭력 사건에 관한 징계 규정 안내 △스포츠인권센터 업무 및 이용 안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 관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선수 개별상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연중 상시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해 선수들과 소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기적인 상담을 할 예정이다. 스포츠 4대 악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인권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BUSAN SPORTS COUNCIL NEWS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 영상 중계·제작 보급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활동이 어려워진 시민들을 위해 16개 구·군체육회 117명의 지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스포츠 복지 영상을 7~8분 분량으로 구성해 보급했다. 유튜브 송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홍보 및 홈 트레이닝 및 각종 종목의 운동방법 등을 안내하며 선호도나 참여도가 높은 종목을 선정해 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지도 영상은 각 구·군별 영상제작 콘텐츠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촬영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처럼 구·군체육회와 협력해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 영상 보급과 같은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동안 운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한 생활체육인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4월 2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정모종합실내훈련장 일원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선수 및 지도자 202명과 16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112명 등 총 31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 부산광역시 체육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선제 검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팀별 훈련과 대회 출전이 많은 부산 관내 선수단의 집단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산시민과 생활체육 지도를 통해 비교적 접촉 횟수가 많은 구·군체육회 지도자의 지역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개개인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특히 체육인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앞장서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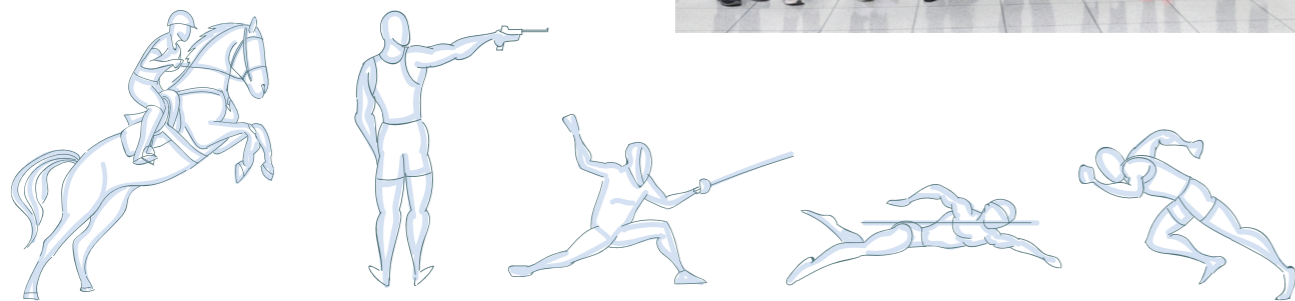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BNK저축은행 근대5종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협약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BNK저축은행과 지난 2021년 4월 7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외 3명과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외 3명,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회장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체육회-BNK저축은행 근대5종 직장운동경기부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BNK저축은행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중 근대5종 종목을 선택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비인기 종목인 근대5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대5종 팀에 선수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장비, 훈련복 등 경기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조보성 감독과 정민아, 김세희, 이화영 선수까지 4명으로 시작해 올해는 남자 선수 김세동, 문주성, 손정빈 등 3명의 남자 선수를 추가로 영입해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올해부터 'BNK저축은행 근대5종 여자팀'은 'BNK저축은행 근대5종팀'으로 명칭을 변경해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소속 선수 중 김세희 선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은메달리스트로 2019년에 열린 근대5종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개인, 단체 1위를 차지해 오는 7월에 개최되는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출전권을 획득해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 금융기관인 BNK금융그룹의 지원이 부산의 향토 기업 참여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부산시민의 건강과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해운대구FC 유소년팀 방문 격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지난 5월 4일(화) 해운대구FC 유소년팀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장인화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훈련용품 전달하고 방역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운대구스포츠클럽 소속의 해운대구FC 유소년팀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형 축구클럽으로, 창단 5년 만에 소속 선수들이 대한축구협회 영재 선수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지역 명문 유소년 축구클럽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운대구스포츠클럽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전문·생활체육이 공존하는 선진형 체육시스템 정착을 위해 관내 15개 스포츠클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며 "향후 부산을 대표하고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진정한 체육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내 스포츠클럽을 방문해 소속 선수단이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진형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등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체육회-동아대학교병원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6월 17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중 회의실에서 동아대학교병원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과 동아대학교병원 안희배 병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단체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 활용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부산광역시 시민 및 체육인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동아대학교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 장비를 통해 체육회 관련 의료 지원, 병원 이용 시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 형성, 의료 인력 및 응급 차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대학교병원 안희배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체육인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부산광역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동아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체육인들의 건강 예방 및 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과학센터와 스포츠재활센터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16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체육회, 6개 종목에 1,000여 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6월 18일(금) 부산종합운동장 사직실내 테니스장 외 6개소(사직실내테니스장, 삼락파크 골프경기장, 명지 75광장 게이트볼장, 명지오션 축구장, 명지 신호공원 축구장, 한국 자유총연맹 대강당)에서 동호인 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어르신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각종 종합체육대회와 행사 등이 취소되어 부산 어르신들의 활동 무대가 없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나 오랜만에 체육활동을 통해 동호인들이 밝은 모습을 띤 하루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방역수칙에 의거하여 실외 종목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지역 체육대회의 첫 행사로 향후 종합체육대회의 시발점이 되는 의미 있는 대회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이 성공리에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여 부산의 지역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법인 출범식 및 이사회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6월 23일(수) 오전 체육회관에서 법인 출범식 및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체육회 법정 법인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 새출발했다. 이날은 지난 5개월간 법인 설립을 위해 노력한 준비위원회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법인설립 추진경과 등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사항 심의 등이 이어졌다. 이사회 종료 후에는 케이크 절단식 및 기념촬영 등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법인 설립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 성장 동력이 생겼다”며 “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USAN SPORTS COUNCIL



출처: 서울경제, 조원진, 2021. 06. 23.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회 및 법인 출범식 개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09명 정규직 전환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부산 16개 구·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의결을 완료했다. 정부의 지방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 구·군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6월 25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은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방법에 따라 대상자로부터 평가심의자료를 제출받아 2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완료했다. 정규직 전환자는 총 109명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 및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고용불안 해소 및 신분 보장이 이루어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출처: 서울경제, 조원진, 2021. 07. 01.
<부산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09명 정규직 전환 확정>





부산광역시체육회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지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7월 6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국비 예산을 확보해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14개를 선정해 1억 9천 330만 원 규모의 훈련 장비(용품)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선수들의 목표 성취 및 훈련 성과를 극대화했다. 선정된 학교 종목은 탁구, 배드민턴, 육상, 태권도, 체조, 스키 등으로 다양하며, 신청한 훈련 장비 및 용품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체육 활동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적 훈련용 기구 지원 등 훈련 여건을 개선시켜 우수한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훈련용품 지원을 통해 스포츠 유망주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학교운동부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악조건 속에서도 열정 다했던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장인화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선수단장(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이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올림픽경기대회 선수단장으로 선임된 1호 지역 체육회장이라는 점은 영광이었지만 지난 올림픽경기대회는 성적은 물론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지켜야 해 부담감도 컸다.

장 단장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안전이었다. 올림픽경기대회 이전에 대한민국 선수단은 백신 접종을 마쳤고,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방역수칙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해 2021년 7월 8일(목) 결단식에서부터 선수단을 교육했고, 대회 기간에는 방역 전문의가 동행해 안전을 책임졌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자재도 위험 요소였다. 장 단장은 선수촌 인근 급식센터에 지원 가능한 품목을 보냈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과일·육류·생선 등은 현지에서 검증된 식자재를 선별해 선수단에 공급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6년 브라질에서 열렸던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경기대회에서도 선수촌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코리아하우스를 개관해 선수와 임원들에게 한식 도시락을 제공했다.

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자 불참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었다. 하지만 그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자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오랜 시간 올림픽경기대회만 바라보고 준비해온 선수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했다”며 “세계인이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독도 영토 표기 삭제 요구를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는 무척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16위를 기록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경기대회(8위, 금메달 9개), 2012년 런던 올림픽경기대회(5위, 금메달 13개)와 비교하면 순위는 낮아졌다. 세대교체가 되면서 메달을 노릴 수 있는 선수가 적어진 탓이었다.



장 단장은 “국가대표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다. 그러나 반일정서까지 겹쳐 국내에서 열기가 잘 느껴지지 않아 아쉬웠다”고 전했다. 이어 “선수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 열정을 다했던 만큼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는 선수들의 기억에 깊은 잔상을 남겼다. 장 단장은 “29개 종목에 출전했던 선수 226명(부산 25명)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했다. 국민들도 선수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을 바라보며 환희와 감동을 느꼈기를 바란다”고 했다.

출처: 국제신문, 권용휘, 2021. 07. 06.
<‘삼중고’ 올림픽... ‘철저히 준비, 선수 안전도 쏠 딸 것’>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출전하는 태극전사 일본 도착해 현지 적응 돌입

지난 7월 19일(월)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에 출전하는 태극전사 본진이 일본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본격적인 현지 적응에 돌입했으며 개막 전날 열리는 남자 축구대표팀의 뉴질랜드전을 시작으로 메달 사냥에 나섰다.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장인화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선수단장(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양궁 11명, 체조 10명, 탁구 9명, 펜싱 8명, 자전거 2명, 승마 1명에 본부 임원 28명까지 총 69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29개 종목에 선수단 354명(선수 232명·임원 122명)을 보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경기는 개막 전날인 7월 22일(목) 열렸다.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남자 축구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렀다. 뉴질랜드 남자축구팀은 올림픽 경기대회 본선에 두 차례 진출해 2무 4패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은 10차례 진출해 34전 10승 13무 11패를 기록해 뉴질랜드보다 어려모로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원한 승리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다.

우리 팀은 압도적인 볼 점유율, 많은 슈팅 등으로 뉴질랜드 남자 축구팀의 기세를 압박했지만 후반 25분 크리스 우드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하고 말았다. 첫 경기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지만 대표팀은 승리를 향한 패기와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후 대한민국 선수단은 양궁, 체조, 펜싱 등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국제신문, 권용휘, 2021. 07. 19.
<태극전사 결전의 땅 입성, 24일 '금맥' 캔다>



BUSAN
SPORTS
COUNCIL
NEWS



대한민국 선수단, 여자 배구 8강에서 명승부 펼친 터키선수단 사무실 방문

장인화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선수단장(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여자배구 8강전에서 대한민국과 명승부를 펼친 터키 선수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터키에서 일어난 큰 산불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터키 간의 활발한 스포츠 교류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지난 8월 4일(수)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터키의 여자배구 8강전을 치른 후, 터키 선수들이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선수들이 코트에서 보여준 열정과 투지, 경기 후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지켜보던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지원해준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으며, 터키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모목 기증운동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게 해주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는 것임을 밝히며, 앞으로 스포츠와 더불어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터키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영웅들 '월드엑스포 부산' 홍보대사 위촉 추진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선수단을 이끈 장인화 선수단장(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이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에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준 국민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이자 지역 기업인으로 선수단장을 맡아 선수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이자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인 장인화 회장은 지역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올림픽경기대회 선수단장으로 임명되면서 체육계와 지역 경제계에서 상당한 화제가 됐다. 올림픽경기대회 기간 내내 선수단의 관리·지원을 책임지면서 임원진과 함께 주요 경기마다 참석해 열띤 응원을 펼치는 모습이 여러 중계방송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장 단장은 귀국 후 부산 출신 선수를 비롯한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영웅들과 함께 엑스포 유치에 나서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경기를 끝내고 중도에 귀국하는 선수들을 일일이 만나 격려하며 인적 유대를 쌓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 단장은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대회를 치르느라 고생한 선수와 코치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 생각인데, 그 자리에서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유명 선수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안건을 상정해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개최

지난 8월 9일(월) 대한체육회는 일본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선수촌 숙소동 앞 광장에서 제32회 도쿄 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8월 8일(일) 올림픽경기대회 폐막식이 있고 다음 날 진행된 해단식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선수단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치용 부단장의 성적 보고를 시작으로 이기흥 회장의 식사, 장인화 선수단장의 답사 및 단기 반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기흥 회장은 해단식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림픽경기대회가 1년 연기되는 등 역대 올림픽경기대회 중 가장 여건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양한 종목에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메달이나 승패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경기를 즐기고, 당당하게 스포츠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장인화 선수단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속에서도 큰 문제없이 대회를 마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전하며 "성적에 연연하기보다 스포츠 자체를 즐기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대한민국 선수단은 해단식을 마치고 귀국했다. 본부 임원과 지원단을 포함해 3종목(근대5종, 배구, 육상)의 선수 및 지도자 총 60여 명이 귀국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간소하게 선수단 환영 행사를 가졌다.

출처: 대한체육회, 2021. 08. 09.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개최>



제32회 도교 올림픽경기대회 참가 부산 소속 메달리스트 포상금 전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8월 24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접견실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및 김용완 부산광역시펜싱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도교 올림픽경기대회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송세라(부산시청),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마세건(부산시청) 두 선수에게 포상금을 전달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경기대회 이후 9년 만에 펜싱 여자 에페 단체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송세라 선수와 남자 에페 단체종목에서 올림픽경기대회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마세건 선수의 다음 목표는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획득이다.

두 선수는 “지금의 메달 획득에 이어 내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겠다. 나아가 3년 남은 2024 파리 올림픽경기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제32회 도교 올림픽경기대회 대한민국선수단 단장으로 참가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올림픽경기대회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을 만나고 메달을 획득했지만, 부산 소속 선수들은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다”며 “특히 세계 1위인 중국과의 준결승에서 송세라 선수의 활약은 대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렇게 값진 메달을 획득해줘서 자랑스럽다”며 소속팀 지도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내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와 2024 파리 올림픽경기대회에서도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BUSAN SPORTS COUNCIL NEWS



부산광역시체육회 꿈나무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확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선수 저변확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확대 진행했으며 학교운동부지원사업, 꿈나무육성지원사업, 장학금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부산체육의 미래인 꿈나무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서는 장학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 선수들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후원기업인 우성종합건설 이외에 한국거래소, 은산해운항공 등 지역의 우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유치해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등학교 클럽 학생선수 300명에게 100만원 씩 지급했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미래가 촉망되거나, 취약계층 대상 학생으로 선정했다.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동부 육성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클럽 학생 선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장학금 지원이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꿈과 희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출처: 부산제일경제, 원동화, 2021. 09. 16. <부산시 체육회, 꿈나무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확대>



부산광역시체육회-한국거래소 초·중학교 학생선수 장학금 전달식 성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9월 27일(월)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초·중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2021년 지원하는 3억 원의 장학금 중 첫 번째로 한국거래소의 후원을 받아 체육장학생을 선발한 뒤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생으로는 25개교에서 활동하는 검도, 농구 등 15개 종목의 초·중학교 학생선수 30명이 선발됐으며 1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윤택한 숲을 이루었듯이 나눔을 통해 자본시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지원 등을 실시하여 미래를 가꾸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체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선수 장학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한국거래소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장학금이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꿈과 희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0월 6일(수)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한국해양대학교와 부산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과 한국해양대학교 도덕희 총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단체가 보유한 정보와 콘텐츠를 최대한 공유 및 활용하게 됐으며 부산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았다.

주요 협약내용은 해양레저 문화와 스포츠산업 발전 및 확대에 대한 협력, 체육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협력, 우수 인재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력 등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단체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스포츠, 문화, 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등 해양 분야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부산 선수단 780명 참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0월 8일(금)부터 10월 14일(목)까지 구미시민운동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렸다. 개회식은 8일 오후 6시 30분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했다.

부산 선수단은 38개 종목에 선수 436명, 임원 344명 등 총 780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로 고등부만 참가한 축소 대회에도 불구하고 부산 선수단은 명승부를 펼치며 대부분의 종목에서 예상 성적을 웃돌거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 선수단이 국제스포츠 도시로서의 부산 이미지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 경기 스포츠맨십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진행된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며 다시 한번 명성을 널리 알렸다.

출처: 국제신문, 권용휘, 2021. 10. 07.
<전국체전 8일 개막... 부산 780명 참가>



부산 선수단,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65개 메달 획득

지난 10월 8일(금)부터 일주일간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 고등부 선수들이 두각을 보였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입시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만 참가했으며 경상북도 구미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부산 선수단의 메달 성적은 지난 9월 사전 경기로 진행된 부산 대표 KT의 여자 하키 일반부 금메달도 포함되어 금메달 16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9개로 총 65개이다. 이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준의 성적을 상회한 결과이다.

선수 중에는 에어로빅의 차지원(부산체육고등학교)이 여자 개인, 단체, 혼합단체 등 3개의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종목은 수영이 에어로빅과 같이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남자 평영 100m의 김민규(부산체육고등학교)와 남자 자유형 400m 권희준(부산체육고등학교), 여자 개인혼영 200m 이승은(사직고등학교)이 1위를 했다.

김근현(부산체육고등학교)은 남자 역도 89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역도 76kg급의 김자현(서부산공업고등학교)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김자현은 용상에서 112kg, 용상과 인상 합계 196kg을 들어올렸다.

육상도 남녀 장대높이뛰기에서 모두 1위를 했다. 부산 대표로 장대높이뛰기에 참가한 남자 권용현(부산체육고등학교)은 4m 60, 여자 윤예린(부산체육고등학교)은 3m 20을 기록하며 마음껏 기량을 펼쳤다.

자전거 단체스프린트의 이찬영 외 3명(부산체육고등학교), 우슈 김현균(강서고등학교), 조정 더블스컬의 류준(동아공업고등학교)과 이승준(동아공업고등학교), 여자 유도 52kg급 정나리(부산체육고등학교)도 금메달을 따며 이름을 날렸다.

인기 구기종목인 야구는 실력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승부 추첨에서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다. 축구는 부산 대표로 나선 개성고등학교가 1차전에서 전남 대표 광양제철고등학교를 만나 2-1로 승리했지만 준준결승에서 패하면서 종합순위 5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황선우(서울체육고등학교)는 최우수선수(MVP) 선정과 함께 박태환 선수가 보유하던 자유형 100m와 200m, 개인혼영 200m 등 한국 신기록 3개를 바꾸는 기업을 토했다. 또 계영 400m와 혼계영 400m까지 1위를 하며 최종 5관왕을 달성했다.

출처: 부산일보, 박지훈, 2021. 10. 14.
<14일 폐막 구미 전국체전, 부산 선수단 65개 메달 수확>





부산광역시체육회-은산해운항공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장학금 전달식 성료

지난 10월 26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2021년 지원하는 3억 원의 장학금 중 두 번째로 은산해운항공의 후원을 받아 체육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선정된 장학생은 육상, 축구 등 19개 종목 28개 교 50명으로 초·중·고 학생선수에게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은 “은산해운항공은 창사 이후 지난 28년 동안 고객 감동과 가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썼다”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CSR(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체육 꿈나무들과 함께 성장하고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체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선수 장학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은산해운항공에 감사의 뜻을 밝혔으며 “이번 장학금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체육 꿈나무 학생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BUSAN SPORTS COUNCIL NEWS



부산광역시체육회, 국립부경대학교와 부산체육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0월 29일(금) 오후 4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국립부경대학교와 부산체육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과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을 포함한 두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체육진흥을 위해 양 단체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양레저·스포츠 및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등 발전에 관한 협력, 체육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협력, 우수 인재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력 등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국립부경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협력을 통해 스포츠, 문화, 산업 분야의 발전을 포함해 청년일자리 창출 등 부산 체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복합재개발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무료 여성 태권도교실 개강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 태권도 교실을 개설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 태권도교실은 지난 11월 1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체육회관 월계관에서 진행됐다. 개강식에서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시범단이 품새 시범을 선보여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태권도는 손과 발을 이용해 공격과 방어를 하는 무도 중 하나로 체력을 단련시키고 신체를 균형 있게 만들며 정신수양을 하는 데 좋다.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태권도는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 경기대회 등에서 관중들이 환호하는 스포츠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상임부회장은 “여성 태권도교실을 통해 많은 분이 신체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건강을 증진시켜 활기차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꾸준히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다.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친선과 화합에 앞장서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할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지난 11월 13(토) 아시아드주경기장 등에서 열렸다. 대회는 지난 8월 28일(토)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되었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 교류를 통해 메가시티 조성 분위기를 이끌고, 상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육을 진흥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지금까지 단일 시·도에서 열린 것과는 달리 3개의 도시가 화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만큼 많은 체육인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종목은 총 7개(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야구, 조정, 카누, 테니스, 파크골프)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종목별 진행 요원 및 행사 장소마다 관리 책임자를 두었다.

2021년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메가스�포츠 한마당을 개최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부터 메가시티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서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을 안전하게 치러내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체육계의 힘찬 발걸음이 공동체 형성의 중심점이 되고,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제신문, 이준영, 2021. 11. 10.
<통합 스포츠 대회로 메가시티 앞장간다>





부산광역시체육회-우성스포츠재단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장학금 전달식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1월 26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의 전문체육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 2020년 우성스포츠재단과 협약을 통해 체육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2020년에는 20개 종목 44개교 70명에게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수영, 야구 등 24개 종목의 47개교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70명에게 10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우성스포츠재단 정한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개최해 사회취약계층 청소년 및 아마추어 유망 선수를 포함한 미래 꿈나무들에게 도전정신과 실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학생선수들이 성적에만 연연하지 않고 팀과 동료들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인성을 갖춘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체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선수 장학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을 위해 장학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 진행해 학생선수들이 목표한 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BUSAN
SPORTS
COUNCIL
NEWS



2021 부산체육꿈나무 장학금 및 운동용품 전달식 성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9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대회 의실에서 초·중학교 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2021 부산체육 꿈나무 장학금 및 운동용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1년 연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 만큼 부산체육의 미래인 꿈나무 학생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게 준비했다.

부산도시가스 후원으로 총 8,000만 원 상당의 훈련용품을 초·중학교 운동부(클럽) 15개 팀 대상으로 지원했고, 우수선수 장학금은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선수 등 부산체육의 미래가 촉망되는 선수 150명에게 1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장인화 회장이 취임한 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선수 저변 확대 및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확대 진행해왔다. 그 중 가장 뚜렷한 성과를 보인 장학금 지원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원이다. 특히 이번 전달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올해 학생선수들을 위해 지원하는 3억 원의 장학금 중 최고액인 1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지원을 위해 후원해주신 부산도시가스 구태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부산광역시체육회 장학금 지원을 계기로 학생선수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육꿈나무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진행해 학생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공능력평가 부·울·경 1위 건설기업

주거문화 및 레저산업을 선도하고 교육보국을 실천하는 신용의 기업

동원 100년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동원이 「DREAM WORK」 브랜드로 공유오피스 사업을 함께합니다.



주동원개발
www.dongwonapt.co.kr

부산 북항 D2 블록 *the Gate Dongwon*

기업신용평가 AAA등급
코스닥 상장 우량기업

국내 최초 주택산업분야
금탑산업훈장 수훈

포브스 선정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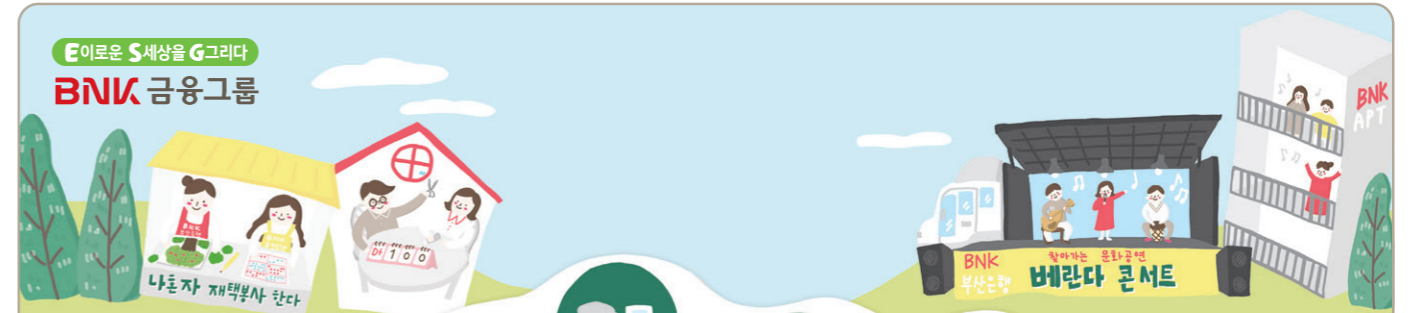
주택건설 44년
7만여세대 공급

동원개발그룹



대표이사 / 회장 **장복만**

E이로운 S세상을 G그리다
BNK 금융그룹



BNK부산은행은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언택트 릴레이 봉사,
리플 환경운동 등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이 세상을 응원하는 방법

조금 달라진 세상,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BNK부산은행이 먼저 찾아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구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